

---

# 칼뱅, 축자영감설의 창시자인가?

: 칼뱅과 칼뱅주의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

양 신혜 | 백석신학교 강사

##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칼뱅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들로 핫지, 위필드, 메이첸 등을 꼽는다. 이들의 특징은 스콜라 신학 방법론의 계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16세기 베자 이후 19세기에 핫지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였다. 핫지는 그 당시 널리 퍼진 영적각성운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17세기 정통주의, 특히 투레티니의 신학을 유입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에 형성된 칼뱅주의는 칼뱅을 이어 17세기에 형성된 후기개혁정통신학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한 신학으로 정의 될 수 있다(김재성, 2003:133).

이러한 칼뱅주의 정의는 멀리가 그의 논문 “칼빈과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와 정통주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평가” (Muller, 1995: 1996)에서 칼뱅이 이미 스콜라적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후기개혁정통주의자들이 계승하여 적용했다는 것을 논증하여 이 정의에 타당성을 한층 강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신학적 방법론의 계승이 내용 계승의 담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장로교회 분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축자영감설에 토대를

둔 성서 이해의 관점에서 칼뱅과 칼뱅주의자들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의 성서영감 연구에서 제베르그(Seeberg, 1920: 76)는 칼뱅을 “정통 프로테스탄티즘의 영감 이해의 장본인”(축자영감)으로 여겼다. 리츨(Ritschl, 1908: 62) 역시 축자영감의 이해가 개혁과 교회 진영 내에서 만들어졌으며, 칼뱅에게서 처음으로 축자영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부류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칼뱅이 성서 영감을 하나의 독립된 교리 주제로 삼아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쉘롱(Schellong, 1969: 82~83)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평가하였다: “빈번하게 이러한 의미(칼뱅을 축자영감 이해의 창시자로 보는 견해)로 이해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 견해는 곧 반박된다. 칼뱅의 사상을 후대에 형성된 개념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칼뱅에게서 이러한 이해의 전조를 발견할 수 있는지, 만약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칼뱅의 영감 이해는 후대에 형성된, 더 나아가 칼뱅과 무관하게 형성된 축자영감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축자영감’이란 개념이 칼뱅 이후 후대에 형성된 신학 용어라는 점이다. 후대에 형성된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칼뱅의 신학적 사상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칼뱅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반된 해석들이 상존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텍스트 분석을 통한 하나의 논리적 결과이므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문법적 접근을 통해 텍스트의 원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칼뱅과 그의 영감을 여전히 축자영감으로 이해하는 칼뱅주의자, 특히 후기정통개혁주의와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2. 칼뱅의 성서영감에 대한 연구 경향

칼뱅의 성서영감 이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언급했듯이 상반된 주장이 서로 대립 구도를 형성해 왔다. 최근에 독일에서 칼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이 형성됨으로써 칼뱅의 성서영감 이해에 대한 연구는 ‘축자영감’ (Verbalinspiration), ‘사상영감’ (Sachinspiration), ‘인격적영감’ (Personalinspiration)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워필드, 머레이, 패커는 칼뱅의 성서영감을 축자영감으로 이해하고 언급하는데, 축자영감설을 주장하는 한국의 칼뱅주의자들 역시 이들의 해석에 동의한다. 이들은 또한 축자영감설을 성서무오류의 근거로 삼아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초자연적 능력의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인간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는 기계(기계적영감; mechanical inspiration)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공간을 허락하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유기적영감’ (organic inspiration)을 주장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크루쉐, 게리쉬, 멀러, 퍼켓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칼뱅의 영감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성서의 문자와 내용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리하여 성령의 통제로서 영감은 성서의 내용과 문자를 포괄한다. 이 정명은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내용만을 오류 없이 인도했다는 사상영감-혜폐, 두메르그, 맥네일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성서의 내용을 오류 없이 인도한 성령이 성서의 문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은 성령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쿠루쉐(Krusche, 1969: 173)는 성령의 영감을 ‘강력한 성령의 통치’로 이해한다. 이는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공적수행자’ 또는 ‘증인’으로서 성서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인간적인 사상을 덧붙이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 저자가 ‘그대로 전달한’ 것이 바로 성서의 “원형”(Originalitaet)이고,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통치”로 보존된다. 게리쉬(Gerrish, 1959: 63)는 성서의 내용과 형태가 성령을 통한 “정교한 통합”(ingenious synthesis)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의 해석에 따르면 성서의 내용과 형태의 정교한 통합이 바로 성서의 초자연적인 본질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성서의 초자연적 본질의 근거로 ‘성서의 자증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권위인 ‘성서의 정경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멀리(Muller, 1979: 19)는 성서의 영감과 성령의 증거를 “성령의 상관관계”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 상관관계는 “인식론적(epistemological) 그리고 그리스도론적 (또는 삼위일체론적), 순수지성의(noetic) 그리고 존재의(ontic), 주관적(subjectiv) 그리고 객관적(objectiv) 요소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삼위일체론적 혹은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성서는 올바른 하나님 인식으로 인도하는 특별계시이기 때문에 인식론적 관점에서 성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본질적인 말씀과 동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는 말씀선포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는 존재와 순수지성의 관계에서 존재로서 선지자와 사도들과 순수인식으로서 그들이 도달한 인식이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입장을 표방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달한 인식은 성령의 힘에 의한 증언이며,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난 성서의 외형적·객관적 형태와 성서를 직접 대면하여 읽을 때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개입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를 “성서의 다양성에 대한 개인적 이해에서 객관적 진리의 확증으로 인도한다(윇골: 22).” 믿음은 성령을 통한 주관적인 확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감된 성서의 객관적인 진리를 보존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논리적 정교함으로 칼뱅의 성서영감을 논증하나, 결론적으로 칼뱅의 영감 이해를 축자영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서의 구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류가 없다는 입장, 즉 사상영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축자영감에 대한 새로운 교리적 측면에서 이

해를 시도함을 알 수 있다. 맥킴에 따르면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령을 통한 경험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문자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한다(McKim, 1984: 61).

최근에 독일 학자들로 구성된 칼뱅 연구가 노이저, 쉘롱, 쉘트 등을 중심으로 칼뱅의 성서 영감을 ‘인격적영감’ (Personalinspiration)으로 이해하는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영감을 성서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 받은 임무를 깨닫고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생각한다. 또한 ‘축자영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유기적영감’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무엇보다 축자영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축자영감이 기계적영감으로 오인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축자영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과 능력, 그가 처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靈)은 이러한 제약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영감을 주장하는 학자들과는 달리 노이저는 분명하게 문자와 연결시키는 축자영감설을 부인한다. 더욱이 그는 영감이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내용만 오류 없이 보존했다는 사상영감이 지닌 한계 또한 직시하고 있다. 노이저(Neuser, 1994: 63)는 칼뱅이 딤후 3장 16절 주석에서 성서, 선지자들의 문서와 선지자들의 교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영감이 성서의 중심 교리로서 성서의 내용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선지자들의 문서에서 ‘중심적인 것’과 ‘그외의 것’ 또는 복음과 복음서의 전체 사이에 한계를 긋는 데 주저한다. 더 나아가 성서를 ‘하늘의 진리’가 아닌 “칼뱅 자신의 교리적 체계”에 종속시킨다(윌클: 63). 노이저는 칼뱅이 「기독교강요」 서문-이하 강요라고 쓴다-에서 성서내용 속 올바른 교리를 찾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독자의 선이해에 대해 서술한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노이저는 이를 “해석학적 순환”으로 여긴다. 이로써 워필드를 비롯한 축자영

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유기적영감과 노이저를 비롯한 독일계 신학자들이 표방하는 인격적영감 사이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성서의 무오류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3. 축자영감설의 논리적 근거

#### 1) 특별계시로서 독트리나<sup>1)</sup>

딤후 3장 16절은 성서의 축자영감을 논증하기 위한 전형적인 성서 구절로, 그 이유를 들어 칼뱅연구가들도 이 구절에 대한 칼뱅의 주석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논증의 근거로 삼는다. 이들은 딤후 3장 16절 주석에서 칼뱅이 성령의 역할인 디타레(dictare: 받아쓰다)를 성서(scriptura)와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독트리나(doctrina)란 단어와 연결시켜 서술한 다음의 문장에 주목한다: “성서의 문서들에서 어떤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율법과 예언들이 인간 임의대로 지어낸 독트리나가 아니라 이것들은 성령이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CO 52: 383).”

패커는 독트리나를 성서의 신적 본질인 특별계시로 이해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독트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형태로 성서의 구원 내용이며 성서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성서의 본질로서 독트리나는 말씀선포, 즉 가르침(성서 교육)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는 교회의 가르침인 설교와도 상호교환이 가능한 개념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며 성령이 이를 확증시키기 때문이다: “독트리나는 그것(하나님 말씀)의 본래 형태로 개인에서 주어진 특별 계시였다; 현재 그것은 성서의 형태를 지녔고 성서 안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원했던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독트리나로서 그 특성을 지닌 성서는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

1) 칼뱅은 라틴어 독트리나를 사전적 의미인 ‘가르침’ 내지는 ‘교리’ 이외에 ‘구원의 진리’나 ‘지혜’를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낼 때는 라틴어를 음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선포, 가르침, 약속, 권고가 된다. 왜냐하면 기록된 것은 성령을 체험한 지 금의 독자에 의해서 해석되고 확증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성령이 기록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Packer, 1984: 162).” 그의 논리에 따르면 성서와 독트리나와 설교는 모두 상호교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그 신적 권위는 특별계시로서의 독트리나에 근거한다.

## 2) 받아쓰기

칼뱅의 성서영감에 대한 이해를 독자영감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령의 역할로서 ‘받아쓰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디타테에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서 저자를 하나님이 불러 주는 말씀을 단지 받아쓰는 ‘비서’ 또는 ‘서기관’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단어 자체가 성서의 무오를 담보하고 성서의 권위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칼뱅의 영감 이해를 독자영감으로 결론짓는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리츨, 워필드, 패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워필드의 해석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칼뱅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칼뱅의 독자영감 이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대다수가 그의 해석을 정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필드(Warfield, 1931: 63)에 따르면 칼뱅은 받아쓰기란 단어를 “은유적”(figurative)으로 이해하는데, 받아쓰기라는 단어는 영감의 방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영감의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받아쓰기는 성서가 마치 성령이 불러준 것을 받아쓴 결과물처럼 인간적인 오류에서 벗어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산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칼뱅은 성서의 저자를 필사하는 사람이나 비서로 표현하는데, 이 또한 성령의 역할인 ‘받아쓰기’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쿠르쉐(Krusche, 1969; 168)는 받아쓰기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분석하여 다음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칼뱅은 ‘받아쓰기’라는 단어를 부사 “...인 것처럼”(quasi), “어떤 의미에서”(quodammodo) 또는 “...같이”(tanquam)와 함께 사용한다. 둘째, 성령의 명령이 언제나 받아쓰는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행 1:23; 마 9:23), 어떤 상황에서

행해지는 고백이나 입으로 전해져 오는 전승(마 10:20; 행 15:28)과 연결된다. 셋째, 성서의 저자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저자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는 것만을 받아 써야 한다. 그 이유는 성서의 저자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이며, 그는 영감의 역할로서 인간의 ‘소명’에 중심점을 두어 영감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인도하는 힘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감을 성경 저자의 증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성령의 통치”,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인 성경저자를 압류한 상태로 이해하여 조명과 구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칼뱅의 성서 영감 이해를 축자영감이라고 간주한다.

### 3) 칼뱅의 관용적 표현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이해

칼뱅의 영감 이해를 축자영감으로 이해하는 칼뱅연구가들은 칼뱅의 관용적인 표현에 주목하는데 즉, “하나님의 입”, “하늘의 계시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리고 “성령이 말하길…”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 뒤에 하나의 논리적 명제가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서가 다양한 문서들로 이루어졌으나 성서의 저자는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능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 오류가 있는 성서를 집필했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며, 결국 성서의 무오류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potentia Dei absoluta)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결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을 팩커(Packer, 1984: 147)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자유로운(즉, 심리적으로 자기 결정적인) 인간 행위를 미리 정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분명한 개념, 즉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정한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칼뱅은 시종 일관하게 축자영감적 이해와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칼뱅이 축자영감 이해와 어떤 문제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은 칼뱅이 행하여 온 신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전례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일 것이고 최소한 그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 4)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는 동일한가?

칼뱅의 영감 이해를 축자영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성령의 역할로서 영감이 성서의 신적 본질을 구성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문서들과 구분되는 성서의 특성이다. 성서의 신적 본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필드와 패커는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명제를 세운다. 이 둘의 근거는 바로 성서의 저자이자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 자신으로 이들은 칼뱅이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 언제나 단수(verbum Dei)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감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이해한다. 또한 이들은 성서의 신적 본질을 논증하기 위해서 칼뱅의 독특한 개념인 '자증성(autopistie)'에 주목한다. 이것은 성서가 다른 어떤 외부에서 주어진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증거한다는 뜻으로, 성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성서에 전적으로 투신하는 자에게 자명하다. 이처럼 이들은 성서의 자증성을 성서의 신적 본질의 근거로 삼았다.

이들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계시로서 독트리나가 성서의 신적 본질을 구성한다. (2) 이들은 성령의 역할로서의 받아쓰기를 강력한 통치로 이해하여 영감과 조명을 구분한다. (3)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제로 한 성서의 무오류를 증거한다. (4)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신적 본질을 지닌다. (5) 성서의 자증성이 신적 본질을 증명한다.

### 4. 칼뱅과 칼뱅주의자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 1) 독트리나에 대한 이해

패커는 칼뱅의 딘후 3장 16절 주석에서 독트리나와 성령의 역할로서 '받아쓰기'를 뜻하는 디타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독트리나를 성서의 본질 형성하는 특별계시로 간주하였다(3.1.참조) 이 문장에서 주목할 것은 칼뱅이 율법과 예언을 독트리나와 상호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율법과 예언은 성서의 내용으로서 역사적 상황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이다. 이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한 결과물로서 역사적 구체성을 지닌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이 독트리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뱅은 1539년판 강요에서 성서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구두 전승에서부터 서술하면서 독트리나를 전승의 본질로 삼았다.

말하자면 그(하나님)는 소수에게 표징을 주어 특별히 그의 분명한 현존을 꿰뚫어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후대인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구원을 주는 진리의 보물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계약을 어떻게 하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가족에게 퍼져나가게 했는지 그리고 전 후손들에게도 확대되도록 보살폈는지 보았다(OS III: 62).

전승의 본질로서 선포 말씀은 바로 “구원을 주는 진리의 보물”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 이것이 ‘전승의 연속성’을 갖게 한다. 이 전승의 연속성은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며,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확고한 믿음에 도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포는 진리의 역사적·본질적인 두 차원의 역동적 관계를 내포한다. 구원의 진리로서 독트리나는 역사적 공간을 배제한 객관적 진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진 인격적 관계를 통한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칼뱅의 독트리나란 단어의 용례를 분석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칼뱅은 우선 영원한 진리로서 독트리나를 “하늘과 구원의 진리”(OS III: 63.72.75) 또는 “믿음의 본질적인 교리”(OS III, 61)라고 표현하여 독트리나가 성서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독트리나는 역사적 시공간 안에서 표출된다. 성서 저자인 선지자나 사도와 연결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의 교리”(OS III: 66), “사도들의 교리”(OS III: 71.73.83), “모세의 교리”(OS III: 74)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교리”(OS III: 80)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성서의 내용과 연결하여 “믿음과 속죄의 교리”(OS

III: 62)와 “계약의 교리”(OS III: 61)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독트리나가 지닌 역사성을 나타내며 영원한 진리인 독트리나가 역사적 공간에서 해석되어 성서의 내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서는 독트리나를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 2) 성령의 역할로서 영감과 조명의 관계

쿠루쎬는 디타레의 용례를 분석하여 이 ‘받아쓰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는 행위가 아닌 구두 전승에서 ‘명령하다’라는 의미나 또는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 그는 영감을 조명과 구분된 강력한 성령의 통치로 이해하여 독자영감설을 지지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최근 ‘받아쓰기’의 용례를 분석한 노이저와 상반된다. 그는 이 용례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칼뱅이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노이저는 칼뱅이 직접 번역한 불어판도 논증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는 칼뱅이 기독교 강요와 시편 주석을 불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 디타레란 단어를 받아쓰다(*dicter*) 대신에 “누가 무엇을 말하게 하다”(*mettre en la bouche*), “주다”(*bailler, donner*), “하나님의 증거를 가슴에 두다”(*avoir tesmoinage de Dieu en coeur*), “격려하다”(*inspirer*)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Neuser, 1994: 61). 이를 근거로 그는 칼뱅이 나타내고자 한 것은 바로 성서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 받아쓰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이저는 칼뱅이 라틴어 디타레를 성령의 역할로서 무언가를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 혹은 ‘불어 넣다’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는 칼뱅의 영감 이해가 독자영감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들의 교리적 선이해가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문제는 영감과 조명을 구분하는 교리적 선이해가 칼뱅의 영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가를 점검하는 일이다. 칼뱅은 담후 3장 16절 주석에서 이러한 성서가 기록된 시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성서의 독자가 어떻게 성서의 신적 권위를 인식할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의 소명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인도한 영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임무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확증시켜 주었다(CO 52: 383).” 여기에서 칼뱅은 분명하게 모세와 선지자를 인도한 영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성서를 읽는 독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성령이 언제나 동일하게 머물기 때문에 성서의 저자인 선지자들과 독자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적·공간적 간격을 뛰어 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로서 영감과 조명을 구분하기보다는 노이저처럼 서로 동일한 성령의 역할로서 유비적(analog)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3)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의 관계

워필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의 관계에서 일치의 근거를 원저자 하나님에게 두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그는 칼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단수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하나님을 다양한 문서들을 하나로 묶는 통일성의 근거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칼뱅이 성서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서술한 단락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냈든지 마치 후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처럼 그들의 임무를 통해서든지 선조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이 말씀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수되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적용할 때마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항상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였다. ... 더욱이 (이것으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별하였는데 이것이 확실한 차이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로 말씀을 공유했기 때문이다(OS III: 62).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도록 하는 믿음의 수여자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

러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말씀의 전승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을 성서에서의 신적 본질의 보증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주는 전수자로서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므로,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건”(Koertner, 2000: 54)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뱅의 신앙교육문답서(1545)에서 기록한 다음의 구절이 지닌 의미가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어디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만 합니까? 그 말씀은 성서(복수)에 포함되어 있다(OS II: 128).”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강요 IV.8.8 - “우선 율법과 선지서와 사도들의 문헌에 담겨 있는 말씀”(OS V: 139)-와 I.7.1-“성서는 계시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다”(OS III: 65) - 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서를 매개체로 하여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칼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로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적 관계를 나타내고자 했고, 성서는 그 말씀을 찾는 장소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러한 정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의 권위에 대한 ‘고백’ 혹은 ‘자명한 이치’로 역사적 형성의 산물인 성서와 실존적 계시 사건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한다. 더 나아가 성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계시의 사건으로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한다. 이는 총체 개념으로 성서의 문서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과 더불어 성서의 저자는 하나님으로서 말을 건네는 자이고 인간은 건네는 말을 듣는 자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4) 특별계시로서 성서에 대한 이해

패커는 성서의 신적 본질을 형성하는 독트리나를 특별계시로 이해하여 성서와 말씀 선포를 동일하게 신적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의 신적 본질을 담보하는 영감을 특별계시로 이해하는 데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게 보인다. 성서를 전능하신 하나님

의 초자연적인 간섭의 역사로 이해한 것인지 또는 구약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로 보는 기록론적 관점에서 특별계시를 이해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칼뱅의 특별계시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그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비교하고 있는 강요 I.6.1를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말씀의 빛을 덧붙인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친밀하게 모으려고 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특권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생각 때문에 크게 동요되는 것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한 후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었다(OS III: 60).

칼뱅은 특별계시로서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하는 매개체이고, 성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이며 ‘장소’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둘째, 칼뱅은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와 말씀을 통한 특별계시를 비교급을 사용하여 서술한다. 이는 칼뱅이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관계를 본질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기능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열기로 작정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사랑에 근거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하나님의 신성을 비추지만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온전하게 “순수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입을 여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셋째, 특별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우위성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열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건넸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는 주체이며 인간은 그 부름에 대답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뿐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로써 칼뱅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특별계시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능론적 의미에서 일반계시보다 ‘더 나은’ 계시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칼뱅이 구약을 주석할 때 특별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특별계시로서의 기독교적 해석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칼뱅은 시 72장 1절 주석에서 이 구절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옹호한다. “이 구절을 단숨에 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의 무리한 해석이다. 우리는 이것을 곧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CO 31: 664).” 또한 시 88장 6절 주석에서도 칼뱅은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해석을 거부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주석에서 죽은 자 가운데 자유로운 자가 그리스도로, 그는 특별한 특권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이끌었으므로 죽음이 그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은 유치하며 시편 기자의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CO 31: 806).”

이러한 해석의 예들은 칼뱅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역사적 그리고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우위를 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이러한 해석의 토대는 그의 성서관에 달려있다. 칼뱅은 성서를 구원사 측면에서 역사적이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성서관이 구약 성서 텍스트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임의적으로 기독교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결론적으로 칼뱅은 특별계시를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성서 해석의 측면에서 단순하게 기독교적 해석으로 이행하는 것도 거부한다. 그에게 있어서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인간을 더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텍스트의 역사비평적 방법에 토대를 둔 문법적 해석에 우위를 두고 삶의 적용 차원에서 기독교적 해석을 허용하여 그 영적 측면의 영원한 진리와 역사적 정황의 간격을 적절하게 융화시켰다.

## 5)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이해

패커는 하나님의 전능에 의존하여 성서의 신적 본질을 주장하는데,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는 기적이나 예언이 성서로 기록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칼뱅은 인문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성서의 권위를 논증하기 위해서 1550년부터 기적과 예언을 ‘보조 증거’로서 강요에 삽입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기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CO 25: 116)과 “율법과 그 교리에 대한 확증”(OS III: 72), 즉 모세가 가져온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도록 도와준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난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로,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모세가 선포한 교리와 교리를 선포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의 권위를 확증하게 된다(OS III: 75).

초자연적 능력으로의 예언에 대하여 칼뱅은 본래 예언은 그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예언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성적인 인간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것이 성서의 권위를 증거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서에 증거된 예언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예언은 일차적 증거인 성령의 증거를 도와주는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은 있을 법하게 보이지 않는 예언이 실제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론다는 믿음의 통찰에 근거하여 예언을 이해한다. 성서에 기록된 기적과 예언은 이성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성서의 권위를 위한 발판이며,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믿음이 이 권위를 실제로 인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려는 자들은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OS III: 81).” 성령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인증하거나 또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확증으로 이끌 수 없다.



칼뱅은 성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성서 자체에 어떤 신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나 또는 성서가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기적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계시의 영감이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지 계시를 보증하는 역할을 할 뿐임을 증명하였다.

## 6) 자증성에 대한 이해

칼뱅의 영감이해를 독자영감으로 주장하는 게리쉬는 성서의 신적 본질로서 ‘자증성’을 그 증거로 내세운다. 칼뱅은 1543년 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처음으로 ‘자증성’이란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서가 아닌 교회의 합의 결정인 기본교리와 연결한다: “실제로 피기우스가 성서의 모호하고 어두운 의미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결정으로 인도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원칙을 성서문헌에서 차용하는 일은 정말 웃긴 일이다. 성서문헌에서 얻은 기본교리들은 스스로 자명하며 최대한 그 명료성을 보존한다(CO 6: 272).” 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문제는 바로 성서 해석의 차이로, 칼뱅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이러한 해석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서 안에 담겨있는 독트리나 자체가 이러한 신뢰성을 보증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주장한다. 이외에 칼뱅은 자증성이란 단어를 히 6;18(1549)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sermo Dei)과 벨후 1;19(1551) 주석에서는 “복음의 진리”(evangelii doctrina)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단어를 문자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성서의 내용이나 해석과 연결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칼뱅이 강요 최종판에서 성서와 연결하여 그리스어로 자증성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그리스어 ‘자증성’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부문장으로 주문장 -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자” - 에 의존한다. 앞의 주문장에서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ergo)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I.7.5의 이 첫 문장이 I.7.4에서 언급된 내용, 즉 성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서 안에서 말씀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부문장에서 무엇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확고하게 성서를 신뢰한다(OS III: 70).” 성서에 대한 신뢰성은 성령의 내적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칼뱅에 따르면 성령은 내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내적 선생’ (doctor internus)이다. 이러한 표현은 강요 I.6에서 성서를 하나님의 참된 인식에 이르도록 하는 선생이며 인도자로 나타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령은 내적으로, 말씀은 외적으로(OS III: 303)”에서처럼 성서와 성령의 역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이 두 방법으로 인간의 사역에 동참한다. 셋째, 이 구절과 다음의 부문장-이 문장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리스어 ‘자증성’ 이 나온다-을 연결하는 접속사(et... quidem)는 앞의 것을 부가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서는 자증한다. 이는 이성적 근거들에 의한 논증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성령의 결과물인 확실성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성서가 자증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이성적 근거에 의한 논증을 넘어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로써 성서가 자증한다는 것은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의 선물로써, I.7.4에서 언급한 내용, 즉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서 안에서 말씀한다는 것과 연결하여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는 그 자체로서 독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말을 건넨’의 목적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도록 이끄는 데 있으며 이는 성령의 간섭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의 자증성은 성서의 어떤 객관적인 신적 본질을 형성하는 근거가 아니라 성령의 간섭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신적 호흡”(OS III: 72)으로 이것이 바로 다른 일반 서적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이룬다.

## 5. 나오는 말

칼뱅 연구 경향을 통해서 그의 성서영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뱅이 성서영감에 대한 어떠한 교리적 신학

적 사고를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해석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진리의 잣대로 삼아 판단하는 것은 해석학적 거리를 무시하는 폭력에 해당한다. 칼뱅의 정신을 이어 전통의 연속성을 담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해석학적 거리에 대한 진지한 숙고, 즉 지금 이 자리에 칼뱅의 사상을 적용하는 자유의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17세기 정통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칼뱅 신학에 이미 내재해 있는 스콜라적 신학 방법론을 계승한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요청의 산물인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해석의 거리’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뱅주의의 순수한 정체성과 전통성을 보증하기 위한 노력으로 칼뱅주의란 개념을 어떤 한 부류에 제한하고 고착화시켜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 개념이 지닌 보편적이며 역동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본 글을 통해서 나타난 칼뱅과 칼뱅주의자들의 불연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서의 본질을 형성하는 독트리나는 영원한 진리로 그 신적 권위를 지닌 반면 인간적인 표현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 과정에서 진리는 인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해석되는 믿음의 결과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로 이끄는 힘은 성서 자체에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난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증성이 지닌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 역시 하나로 편협하게 고착되어, 그가 지닌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2) 성서의 형성 과정에서 성서 저자인 선지자와 사도들을 인도한 성령이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성서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여기에서 칼뱅은 동일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여 그 유비적 관계에서 영감과 조명을 이해하고 있다.

(3) 칼뱅은 특별계시를 어떠한 초월적인 힘의 개입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기능론적 입장을 통해 ‘더 많은’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성서의 형성 과정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나타내는 역사이며,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역사이고 종말론적으로 승화된 역사인 것이다.

(4) 특별계시를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구약성서를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는 데도 칼뱅은 분명하게 한계를 긋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역사적 상황을 무시한 기독교론적 해석보다 구약의 문자 해석에 토대를 둔 기독교론적 해석을 시도한다.

(5) 성서를 기록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 사역인 기적이나 예언은 성서의 신적 본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계에 관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를 확증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후기개혁정통주의의 성서에 대한 신학적 내용을 계승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자영감설은 칼뱅의 성서영감에 대한 이해에서 ‘위로 부터’ 내려오는 단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역동적인 측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의 해석으로 지금 여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삶의 정황’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서로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해석은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칼뱅의 영감에 대한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축자영감의 의미는 신적 본질로서의 성서와 역사적 차원에 실존적 경험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의 역동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도움 받은 글

---

김 재성, 「개혁신학의 정수: 칼빈주의 신학의 근대 발전사」(서울: 이레서원, 2003).

Calvin, J., *J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CO], W. Baum들(역음), 59 vols.(Braunschweig: Scheitschke, 1863ff).

\_\_\_\_\_, *Opera selecta* [OS], P. Barth/G. Niesel(역음), 5 vols.(Muechen: Chr. Kaiser, 1926ff).

Gerrish, Brian A., *The Old Protestantism and the New: Essays on the Reformation Heritage* (Chicago: T&T Clerk, 1959).

Koertner, Ulrich H. J. *Theologie des Wortes Gottes: Positionen – Probleme – Perspektiven*(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Krusche, Werner,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Berlin: EvangelischerVerl. Anst, 1957).

McKim, Donald K., “Calvin’s View of Scripture”, 동일인(역음), *Reading in Calvin’s Theology* (Grand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84).

Muller, Richard, “The Foundation of Calvin’s Theology: Scripture as Revealing Word,” Richard C. Gamble(역음), *Calvin and Calvinism: Calvin and Hermeneutics*, vol. 6 (New York: Garland, 1992).

\_\_\_\_\_, “‘Calvin and Calvinists’: Assessing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Reformation and Orthodoxy”, *Calvin Theological Journal* 30 (1995): 31(1996).

Neuser, Wilhelm, “Calvins Verstaendnis der Heiligen Schrift”, 동일인(역음),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 Co., 1994).

R. Nicole, “John Calvin and Inerrancy,” Richard C. Gamble(역음), *Calvin and Calvinism: Calvin and Hermeneutics*, vol. 6 (New York: Garland, 1992).

Packer, James I., “John Calvin and the Inerrancy of Holy Scripture,” J. D. Hannah(역음), *Inerrancy and the Church* (Chicago: Moody Press, 1984).

Ritschl, Otto, *Dogmen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Leipzig: Hinrichs, 1908).

Schellong, Dieter, *Calvins Auslegung der synoptischen Evangelien* (Muenster: Kaiser, 1969).

Seeberg, Reinhold,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Vol. IV (Darmstadt: Deichert, 1920).

Warfield, B. Breckinridge,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 Pr., 1931).

검색어            칼뱅, 칼뱅주의, 칼뱅과 칼뱅주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축자영감설, 성서무오설

투고일/심사일/게재확정일    2009.08.27 / 2009.08.31 / 2009.09.15

---

# Calvin, the Inventor of the Verbal Inspiration?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Calvin and Calvinists

---

Shinhye Yang

Lecturer, Baekseok Theological Seminary

This subject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Calvin and Calvinists”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the Calvinist. It is defined that the Calvinists in Korea have followed Calvin and post-reformed-orthodoxy of the 17th century and their theology is characterized by the verbal inspiration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Bible. Because this had the large effect on the separ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his study aims to give the investigation into what way different Calvinists’ understanding of the inspiration is related to that of Calvin’s.

I classified the various interpretations in recent research into three groups, the verbal inspira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spiration that is how only the Holy Spirit inspires the content of the Bible related to the salvation of Jesus Christ and personal inspiration. Then, I examined the theological basis of the verbal inspiration and showed, how Calvinists got

into the following argument: (1) the term of doctrina as divine essence of the scripture and as specific revelation, (2) arguments over the verb dictare and (3) the omnipotence of God for the basis of inerrancy of the scripture, (4) correspondence between the term the 'Word of God' and the 'scripture'. Finally, I showed distinctively discontinuity between Calvin and Calvinist by Calvin's text and I tried to understand again the meaning of verbal inspiration.

**Key Words** Calvin, Calvinism,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Calvin and Calvinists, verbal inspiration, inerrancy of the scripture